

사진은 영원하고

November, 2020 | 이예지 에디터

page 1 of 3

Art

사진은
영원하고

칸디다 회화는 공간을 찍는다. 주로 아무도 없는 공공장소를 찍는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나 인간이 없는 장소. 인위적인 조경도, 과장된 구도도 없는 그의 사진은 고요하고 평등하다. 관찰자의 시선은 천천히 머물며 그 속에 부재하는 인간을, 공간에 새겨진 잡재와 식 같은 역사를 읽는다. 회화는 사진을 '보는' 이미 사진에 시간을 부여하는 정지된 매체이자 '더 많은 것을 들여다보기' 하기 위해 사진을 늦추는 예술이라고 말한다. 빛이 부족한 공간에서 오래도록 서 있을수록, 그가 찍는 것은 공간이 아닌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개인전을 진행 중인 칸디다 회화에 공간과 시간, 부재와 현존, 그리고 사진이라는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편지를 보냈고, 그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다.

'La Salle Labrousse - La Bibliothèque de l'Institut Paris' 2017
C-une, 180x20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Conrado Holey/VG Bild-Kunst, Bonn





1 Toldis 2016
Dye-transfer print,
54x62.9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ji
Gallery © Candida
Hofer/VG Bild-Kunst,
Bonn

2 Ethnographisches
Museum Lissabon
11989 © print,
20x3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ji
Gallery © Candida
Hofer/VG Bild-Kunst,
Bonn

3 Poshol Trust
Moskva 112017 © print,
180x98.6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ji
Gallery © Candida
Hofer/VG Bild-Kunst,
Bonn

[illegible][illegible][illegible]

Art



1 "Mural Sovremennogo Iskusstva 'Gang'"
Moskwa V 2017 C-print,
190x145.7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u
Gallery VG 880 Kunst,
Bonn
2 "Mural Sovremennogo
Iskusstva 'Gang'"
Moskwa V 8 2017
C-print, 190x145.7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u Gallery VG
Candida Hofer/VG 880-
Kunst, Bonn
3 "Dom Melnikova
Moskwa VII 2017"
C-print, 190x145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u Gallery VG
Candida Hofer/VG 880-
Kunst, Bonn



196



"Dom Melnikova Moskwa VII 2017"에서는 1920년대 양식이 보존된 벨니코프 하우스 내부와 함께 항박으로 보이는 동시대적 공간을 보여주고, "Mural Sovremennogo Iskusstva 'Gang'" Moskwa VI, VII & VIII 2017"에선 1968년 소련 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차용한 레스토링 '시계'의 채고 안에 새로 지은 현대미술관의 채고 전경을 담았다. 한 공간 안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순간이다. 공간과 시간은 어떻게 관계할까? 공간은 그들의 수면을 끌어올리며 만들어진다. 역사는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공간 주변에서도 역사는 일어난다. 주변과 중심, 그 모두의 역사가 공간의 양극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간을 둘러싼 역사는 때로 공간 내부 역사보다 더 빠르게 진화한다. 그렇기에 공간 속 사람 안에서 무리는 그곳을 가져온 다양한 역사의 지동학적 층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공간이란, 과거의 추억이자 미래에 대한 기대다. 수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집들은 기본적으로 활용하면서, 근현대 건축물에 더

집중하는 까닭이 있나? 필론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많은 도시지, 하지만 내 작품을 돌아보고, 미래의 교육자들을 기쁘게 하려면-확실히 손 안쓰는다는 근현대 건축이나 현대 건축에 중점을 두고 있겠지, 그래, 그렇다. 나는 새로운 것이 더 낫겠지. 사진이란 매체는 영원에 가까운가? 거의 일회적인 일화야. 사진 자체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술은 이미지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며, 인간에게 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과, 보거나 하는 욕망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미지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사진술이라는 것이든, 사진은 더 많은 것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 자신을 잊주는 예술이니까. 지금이 당신에게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무엇인가? 대상을 회화하는 것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내 작업 과정에서 가장 열정을 느끼는 순간의 작업들을 가장 사랑한다. 그러니까 작업실에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의 첫 번째 2초를, 그것이 내가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이다.

코로나 사태에 이제 우리는 미술관 도시권 같은 공공장소에 모이는 일조차 어려워졌다. 이 사태의 충격을 받아낸다면 어떤 공간을 어떤 모습으로 봐야하고 싶은가? 나는 현재같은 공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공간이 가득 차든, 비어 있든 말이다. 그것은 사람이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투시하는 건 내 능력 밖일 것 같았다. 현재의 상황이 끝나면, 한국에서 찾아보고 싶은 장소가 있나? 나는 계속해서 한국 친구들의 말을 듣고, 알고 있다. 부산 전세를 거기다 서울을 넘어, 더 많은 한국을 보고 싶다. 그러면 먹고 싶은 장소도 생기겠지. 조금만 더 잠깐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이 어느정도가 될까? 할 데도가 있다면 무엇일까? 예술가는 어떤 접근법을 취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서 한다. 누군가 가르쳐줄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것을 가든, 인쇄상과 열정을 잃지 말 것.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도 당신과 내가 어떤가? 다시 만날 거라 기대할 것들이 많아.

ARENAHOME+



2020 NOVEMBER

117